

하계 전국 순회 양계 강습회를

마치고

송 정택

<한국가금협회 전무이사>

금년의 전국 순회 양계 강습회는 예년과 같이 한국 사료협회와 가금협회가 공동 주최하였는데 오래 계속된 양계 경기의 불황과, 대통령의 8.3 특별명령이 발동된 직후라 시중의 구매력이 크게 둔화되나 않나 하는 의구심을 안은채 8월 9일 제주시를 기점으로 6개 지역에 대한 지방 강습회가 시작되었다.

강습회 개최 지역의 선정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급적으로 해마다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였으며 이번엔 처음으로 제주시가 포함되었다는 것과 경남에 있어서는 울산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며 한국 사료협회와 본회 각도 지부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되었었다.

강사진의 편성

강사진은 A, B 2개반으로 편성하여

A반은 대구, 울산 춘천 지방으로

유윤수 한국사료협회 부회장

오세정 건국대학교 축산대학교수,

김찬수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동물사료연구실장,

이학철 (대구 울산) 영남대학교 축산대학교수,

김우호 (춘천) 강원대학 교수

B반은 제주 광주 흥성 지방으로

최창해 한국가금협회 부회장

(서울 농업 대학 교수)

오봉국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박근식 가축 위생연구소 계역과장

최성식 중앙 대학 농과대학 교수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들은 사양 관리, 사료, 질병 등 각 분야 별로 권위있는 분들로 보다 기술

면에 안정된 양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이번 강습회는 제 5회(71년도) 강습회와는 좀 달리 우리 전체 양계인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불황(不況) 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각성을 촉구한데 특색이 있다 하겠다.

즉 기술의 습득도 중요 하나 사료, 부화, 약품, 기구 등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걱정하며 분명하게 우리의 취할 바를 서로 연구하며 배운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습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첫째—수지맞는 양계를 하기 위하여는 적정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산 조절이 이루어 지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며

둘째—양계 산물의 제값 받기를 위해 모두가 단합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것이며 정부도 보다 진지하게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체계화 하도록 호소하고

셋째—외국으로 부터의 종축(외국산 종계) 도입을 적절히 조정하여 도입하여 외화를 절약함과 아울러 외국계에 못지 않게 우리 나라 여건에 알맞도록 개량되고 있는 국산계를 정부와 전체 양계 업계가 혼연 일체가 되어 장기 계획을 세워 더욱 개량하는 한편 이용하도록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넷째—사료는 장기 및 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점차 모든 원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도록 하되 절대 부족량 만을 수입토록 하고 우선 우리 주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양추가 스스로가 이용하여 생산 원가면에서 절하를 하도록

노력하자는 것들이었다.

지역별 특성

▶제주지방◀

제주도의 강습회는 제주시의 적십자회관에서 8월 9일 개최되었다. 수강인원은 약 120여명에 처음 개최되는 곳이라 양계인들의 관심도도 높았으며 양계를 하지 않는 일반 축산인들의 관심도도 높았다.

강사 : 오봉국 교수, 최창해 교수, 최성식 교수, 박근식 과장.

후원 : 제일사료(태행사료 상회)

▶경북지방◀

경북지방의 강습회는 대구시 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강당에서 380명의 양계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8월 11일) 양계업이 가장 발전되었으며 가장 많은 수수를 사육하는 대구지방에서는 강의시간보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양계인과 강사들이 서로 불꽃이 튀만큼 양계업의 장래에 대해 서로 의견이 백출하였다. 대부분의 양계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양계인들의 조직을 한국가금협회를 중심으로 강화하자. 둘째 강습회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셋째 적극적으로 생산을 조정하여야 한다.

강사 : 유윤수부회장, 오세정 교수, 김춘수 박사, 이학철 교수.

후원 : 삼성사료, 경북축산사료, 대구 축산협동조합.

▶전남지방◀

전남지방의 강습회는 광주시 농업전문학교 강당에서 전남지방의 양계인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8월 11일)

전남도내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양계인들은 대부분이 양계 산물 유통문제와 외부지역에서 반입되어 덩핑되는 산물은 막을 길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부심하고 있었다.

특히 목포지방의 가금협회 전남지부 목포분회에서는 생산물의 공동판매문제를 논의하는등 양계인들의 단합을 강화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강사 : 최창해 교수, 최성식 교수, 박근식과장
후원 : 제일사료(신안상회)

▶경남지방◀

경남지방의 강습회는 울산의 원흥예식장에서 약 240명이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8월 12일)

대부분이 영세 양계인들인 울산지방의 양계인들은 가금 협회 활동을 통하여 양계인들의 이익 증대에 노력할 것과 적정량의 생산이 우리 자신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문제들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었다.

강사 : 유윤수 부회장, 오세정 교수, 김춘수박사, 이병달 교수.

후원 : 한성사료, 대왕제분, 동아제분, 영남제분, 농협부산 보세공장, 부산축협.

▶충남지방◀

충남지방의 강습회는 홍성읍 홍주국민학교 강당에서 약 50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집단 사육수수는 제일 다수의 양계를 하는 홍성, 광천지방인 만큼 이 지방 양계인들의 관심도는 대단하였으며 질의 역시 사료비 절감방안에서 부터 백혈병의 예방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강사 : 최창해 교수, 최성식 박사, 박근식과장
후원 : 홍성축협, 삼화농원, 계림목장, 카길대리점, 퓨리나 대리점, 한국축산대리점 등.

▶강원지방◀

강원지방의 강습회는 춘천시 문화회관에서 약 17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양계인들은 다시는 불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금협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에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라고 있었으며 양계산물의 소비를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었다.

강사 : 유윤수부회장, 오세정교수, 김춘수박사 김우호교수.

후원 : 중앙사료.

◎ 강습회를 마치고.

끝으로 이번 강습회가 있기까지 노력해주신 한국가금협회 각 도 지부와 한미제약, 한국수의약품(주), 과학사료, 대구지방의 신기농장, 신성부화장, 신일부화장 및 각도 축정과장, 부산의 협동부화장 등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